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에 미치는 영향

박영찬¹, 고의석^{1*}

¹대구대학교 인문대학 스포츠레저학과

The effect of leadership types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the athletes in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s.

Young-Chan, Park¹ and Wi-sug, Ko^{1*}

¹Department of Sport & Leisure Studies, Daegu University

요 약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체육고교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290명의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다요인 리더십 질문지(MLQ)와 성취목표검사지(TEOSQ)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t-test, One-way ANOVA, Scheffe 검정,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성별에서 남학생이, 종목별에서 대인종목, 운동경력에서 2년 이하, 주전/비주전에서 주전선수 요인이 리더십을 높게 지각했다. 둘째, 성별에선 남학생, 주전/비주전에서 주전선수가 성취목표성향을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자아목표성향의 선수에게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의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요인, 조건적 보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제목표성향의 선수는 카리스마와 조건적 보상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덧붙여서,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리더십 유형과 성취목표성향을 다르게 인식했으며, 선수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구성요인 별도로 각각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Abstract To study the influence of leadership types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high school athletes,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MLQ) and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TEOSQ) were used to two-hundred-ninety athletes in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s. The data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by SPSS 19.0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leadership factor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le athletes tended to be more conscious of the individualized consideration(transformation leadership), contingent reward, management by exception(transactional leadership) of the leadership factor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athlete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mparing to the female athletes, male athletes gave more importance on the task goal orientation.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ader's leadership types on the athlete'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he athletes with self goal orientation and the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leadership types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The athletes with high self goal orientation had a negative relationship to the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and a positive relationship to the intellectual stimulation. The athletes with task goal orientation showed differences in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as well as in the contingent reward.

Key Words : goal orientation, leadership, high school

*Corresponding Author : Wi-sug, Ko

Tel: +82-10-3638-0779 email: cksl07@naver.com

접수일 12년 09월 26일

수정일(1차 12년 10월 15일, 2차 12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 12년 11월 08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스포츠는 개개인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국민 결속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Crandall[10]은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 시키려면 훌륭한 시설뿐만 아니라 지도자, 참여자의 운동에 대한 내적 욕구를 파악하여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하여 참가자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현대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조직이 더욱 분업화·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그 효율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조직의 리더로 하여금 조직 구성원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리더십(Leadership)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28].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승리를 얻은 선수들은 그들의 성취에 코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주 이야기한다[14]. 선수의 구성은 동일하더라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팀이 발휘하는 집단적인 성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더십은 스포츠 상황뿐만 아니라 교육, 경영, 군대 등 사회의 여러 분야[35,31,21,34]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은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히딩크 감독이 보여준 리더십이 Burns[4]와 Bass[2]가 주장했던 변혁적 리더십의 양태를 보인다는 가정 하에 살펴보면, 카리스마, 개인적 배려, 지적 자극의 요소를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히딩크 감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도전적인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선수들에게 자신감, 신뢰감, 존중감 및 사명감을 주입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카리스마적 요소를 보유했다. 모든 선수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선수들을 각각 다른 욕구와 능력을 가진 개성적인 인간으로 배려했다는 측면에서 개별적 배려의 요소를 보유했고, 선수들이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함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며, 예전의 행동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선수들에게 새롭고 기발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지적 자극의 요소를 보유했다[19]. 결과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스포츠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끔 해준다. 리더십에 대하여 Gibb[15]는 리더십을 상호작용적인 현상이며 상호작용이론은 리더십 연구를 위한 골격

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스포츠 경기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지도자와 선수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이명국[25]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축구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인식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봉진[26]의 연구는 유도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을 조사한 모든 유형들이 리더십 행동 불일치에서 낮은 집단이 선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이봉춘[27]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팀 효과성과 구성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보여준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스포츠상황에서는 코치들의 지도행동이 선수들이 선호하는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과 일치 할수록 선수들의 수행력이 높아지고 팀의 수행이 더 좋아진다[6]. 또한 Chelladuria & Carron[6]은 인간관계 지향적인 리더와 과제 지향적인 리더 사이의 관계 연구에서 리더의 유형이 성숙도에 따라 팀의 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Case[5]은 인간관계 지향적인 리더가 과제 지향적인 리더에 비해 팀의 성과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리더들의 목표지향성은 운동행동에 있어 중요한 심리요인으로서, 선수들의 성취목표에 따라 노력의 정도와 동기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는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성향이 구분된다[8]. 운동 참가 시 운동 능력이나 운동에 대한 흥미, 자신감이 강할수록, 운동을 통한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지도자 및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가 강하며, 또한 운동지속의사가 강하다 [36]. 이러한 성취목표성향은 어느 한 가지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합적인 목표성향을 채택하기도 한다[32].

성취목표(achievement goal)성향은 애초에 교육학 분야에서 사용하다가 스포츠 분야에 적용된 개념으로서, 관련 학자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노력이나 동기수준이 영향을 받게 되어서 성취수준의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연구들은, 선수들이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요인과 운동수행능력에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경쟁적인 스포츠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38,39].

Nicholls[30]는 성취목표성향을 과제목표성향과 자기 목표성향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성취목표성향을 설명하였

다. 선수들은 자신이 어느 한가지의 성취목표성향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시합에 임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성향을 정확하게 인식 못할 수 있다. 선수 개개인이 리더에 의해 자신의 성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용된 일련의 훈련과정이 시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리더십이 요구되어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리더십 관련 연구들은 선수의 객관적 능력을 정리한 정보를 통해, 주로 지도자의 관점에서 선수를 해석하여 지도하는 편향된 연구 경향을 보여 왔다. 다시 말하면, 감독과 선수의 상호적인 접근보다 감독이나 코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성향에 의해 일방적 지도 유형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엘리트 스포츠의 바탕이 되는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을 파악하고, 지도자에 의한 맹목적인 기술 향상보다는 지도자의 효율적인 리더십을 통해 선수들 개개인의 욕구와 만족감을 높이게 하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리더십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1.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지도력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꾸준한 성과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은 리더십과 성취목표성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은 성취목표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거래적 리더십은 성취목표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경상북도 K시, D광역시에 위치한 체육고등학교 2곳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가 완성된 후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선수들에게 설문지의 목적과 기입방법을 설명해 준 뒤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체육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총 3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Research on the box in general attributes

변인	빈도(n)	구성비율(%)
성별	남	201
	여	89
학년	1학년	103
	2학년	100
	3학년	87
경기종목	개인종목	196
	단체종목	32
	대인종목	62
운동경력	2년 이하	41
	3~5년	147
	5~8년	72
	9년 이상	30
주전/후보	주전	244
	후보	46
합계	290	100

경기종목에 분류는 대인종목은 유도, 레슬링, 태권도, 우슈, 펜싱, 검도, 복싱, 개인종목은 육상, 양궁, 사격, 기계체조, 리듬체조, 수영, 빙상, 역도, 승마, 골프, 볼링, 사이클, 씨름, 요트, 배드민턴(개인), 스쿼시, 테니스(개인), 탁구(개인), 조정(개인), 인클라인 롤러, 트라이애슬론, 단체종목은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핸드볼, 필드하키(아이스하키), 컬링, 럭비, 배드민턴(단체), 테니스(단체), 탁구(단체), 조정(단체)으로 구분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70부를 제외한 290부를 분석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로 개정판 다요인리더십 질문지(MLQ-1형)중에서 Bycio, Hackett & Allen[3]이 부하량 순서대로 추출한 40개의 축소된 문항을 번안하여 권상술[22]이 사용한 40문항에 본 연구자의 상황에 맞게 38문항으로 재변환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의 38문항 중 27개 문항은 변혁적 리더십(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에 관한 내용이며, 11개 문항은 거래적 리더십(조건보상, 예외 관리)에 관한 문항이다.

2.2.2 성취목표성향 검사지

Duda[11]와 Nicholls[30]가 개발한 성취목표검사지(TEOSQ: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서로 독립적인 과제관련 목표지

향을 묻는 7개의 문항과 자아관련 목표지향을 묻는 6개의 문항으로 총 13개의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는 성장훈[37]에 의하여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바 있다.

2.3 연구절차

설문조사가 가능한 D광역시, K시 소재의 체육고등학교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상세히 설명한 후 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각 학교별 조사일정에 따라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 운동부를 직접 방문하여 선수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응답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선수들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코치나 감독에게 자리를 떠나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25분 정도 소요되었고, 작성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곧바로 회수되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총 360부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자료 70부를 제외하여 총 290를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의 절차대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 질문지의 구조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 내적일관성 계수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개인변인(성별, 학년, 종목, 운동경력, 주전/후보)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검증을 위해 t-검증과 일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e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도자의 리더십 요인에 따른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되었다.

3. 결과

3.1 배경변인에 따른 리더십 유형별 요인과

성취목표 성향의 차이검증

3.1.1 성별에 따른 리더십 유형별 요인과 성취목표성향의 차이검증

성별에 따른 지도자 리더십 유형에서 요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리더십 유형의 하위요인 중 개별적 배려에서 평균값이 3.55, 3.30의 수치를 보여,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건적 보상에서도 평균값이 남학생은 3.57, 여학생은 3.33의 수치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고, 예외적 관리 요인에서도 평균값이 남학생 3.31, 여학생 3.09로 나타나 리더십 유형의 세 가지 요인(개별적 배려,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리스마와 지적자극 요인에 대해서는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성취목표성향에서 요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목표성향의 평균값에서 남학생 3.95, 여학생 3.78로 과제목표성향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에서는 개별적 배려, 조건적 보상, 성취목표성향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표 2] 성별에 따른 리더십 요인과 성취목표성향

[Table 2] Leadership factor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cording to sex

변인	성별	N	M	SD	t	p
카리스마	남자	201	3.77	.66	2.735	.007
	여자	89	3.54	.66		
개별적 배려	남자	201	3.55	.69	2.884	.004**
	여자	89	3.30	.65		
지적자극	남자	201	3.65	.68	1.891	.060
	여자	89	3.49	.71		
조건적 보상	남자	201	3.57	.58	3.112	.002**
	여자	89	3.33	.61		
예외적 관리	남자	201	3.31	.62	2.801	.005**
	여자	89	3.09	.55		
자아목표성향	남자	201	3.72	.64	1.156	.248
	여자	89	3.64	.47		
과제목표성향	남자	201	3.95	.59	2.261	.025*
	여자	89	3.78	.55		

p<.05*, p<.01**, p<.001***

3.1.2 경기종목에 따른 지도자 유형별 요인과 성취목표성향의 차이검증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종목에 따른 지도자 리더십 유형과 성취목표성향을 지각하는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리더십 유형의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조건적 보상을 제외한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예외적 관리 요인에서 모두 대인종목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개인종목, 단체종목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성취목표성향의 두 가지 요인에서는 평균값에 따른 종목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에 하위요인인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예외적 관리에서 대인종목집단과 개인종목, 단체종목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종목에 따른 리더십 요인과 성취목표성향
[Table 3] Leadership factor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cording to event

요인	종목	N	M	SD	F / p	Scheffe
카리스마	개인(a)	196	3.67	.66	4.251/.015*	c>b
	단체(b)	32	3.51	.79		
	대인(c)	62	3.90	.57		
개별 배려	개인(a)	196	3.45	.67	5.214/.006**	c>b
	단체(b)	32	3.24	.83		
	대인(c)	62	3.69	.60		
지적 자극	개인(a)	196	3.55	.68	5.551/.004**	c>b
	단체(b)	32	3.43	.77		
	대인(c)	62	3.85	.64		
조건 보상	개인(a)	196	3.50	.60	2.744/.066	-
	단체(b)	32	3.29	.63		
	대인(c)	62	3.59	.56		
예외 관리	개인(a)	196	3.17	.59	11.252/.000**	c>a>b
	단체(b)	32	3.09	.51		
	대인(c)	62	3.55	.61		
자아 목표 성향	개인(a)	196	3.69	.55	.068/.934	-
	단체(b)	32	3.67	.76		
	대인(c)	62	3.72	.65		
과제 목표 성향	개인(a)	196	3.90	.58	.175/.839	-
	단체(b)	32	3.94	.60		
	대인(c)	62	3.86	.60		

p<.05*, p<.01**, p<.001***

3.1.3 운동경력에 따른 지도자 유형별 요인과 성취목표성향의 차이검증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운동경력에 따른 지도자 리더십 유형과 성취목표성향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리더십 유형의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카리스마에서 2년 이하의 경력과 3~5년의 집단간 평균값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예외적 관리, 조건적 보상 요인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리더십 유형의 변혁적 리더십에 하위요인인 카리스마에서 2년 이하의 집단과 3~5년의 집단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운동경력에 따른 리더십과 성취목표성향
[Table 4] Leadership factor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cording to athletic department

하위 요인	운동 경력	N	M	SD	F / p	Scheffe
카리스마	2년이하(a)	41	3.99	.57	3.819/.010*	a>b
	3~5년(b)	148	3.61	.68		
	6~8년(c)	72	3.74	.74		
	9년이상(d)	29	3.71	.37		

p<.05*, p<.01**, p<.001***

3.1.4 주전/후보선수에 따른 지도자 유형별 요인과 성취목표성향의 차이검증

리더십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요인에서 평균값이 3.76과 3.40, 3.54와 3.11, 3.67과 3.27로 주전선수와 후보선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리더십 유형 중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조건적 보상요인에서도 평균값이 3.53, 3.32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성취목표성향에서도 자아목표성향과 과제목표성향 요인에서 3.76, 3.38과 3.96, 3.55로 주전선수가 후보선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전·후보선수에 따른 리더십 유형과 성취목표성향은 전체적으로 주전선수가 후보선수보다 높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5] 주전/후보선수의 리더십과 성취목표성향
[Table 5] Leadership factor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cording to starting/a reserve

변인	주전 후보	N	M	SD	t	p
카리스마	주전	243	3.76	.69	4.567	.000***
	후보	47	3.40	.44		
개별 배려	주전	243	3.54	.69	3.980	.000***
	후보	47	3.11	.52		
지적 자극	주전	243	3.67	.69	3.647	.000***
	후보	47	3.27	.61		
조건 보상	주전	243	3.53	.62	2.892	0.05*
	후보	47	3.32	.41		
예외 관리	주전	243	3.25	.61	.605	.545
	후보	47	3.19	.58		
자아 성향	주전	243	3.76	.57	4.126	.000***
	후보	47	3.38	.62		
과제 성향	주전	243	3.96	.58	5.520	.000***
	후보	47	3.55	.44		

p<.05*, p<.01**, p<.001***

3.2 상관분석

<표 8>은 리더십 유형과 성취목표성향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Pearson의 상관분석 결과이다.

첫째, 리더십 요인과 성취목표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별적배려($r=.336^{**}$), 카리스마($r=.394^{**}$), 지적자극($r=.325^{**}$), 예외적관리($r=.371^{**}$)의 리더십 요인에서 자아목표성향보다 과제목표성향에 대해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자아목표성향은 리더십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 요인인 개별적 배려($r=.044$), 카리스마($r=.055$), 지적자극($r=.111$)과는 상관이 없는 반면에 거래적 리더십 요인인 조건적 보상($r=.171^{**}$)에서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6] 각 변인별 상관분석 결과

[Table 6] Verific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s

요인	1	2	3	4	5	6	7
개별 배려	1						
카리스마	.680**	1					
지적 자극	.476**	.581**	1				
조건 보상	.360**	.415**	.477**	1			
예외 관리	.229**	.094	.127*	.037	1		
과제 성향	.336**	.394**	.325**	.371**	-.067	1	
자아 성향	.044	.055	.111	.171**	.104	.399**	1

$p<.05^*$, $p<.01^{**}$, $p<.001^{***}$

3.3 리더십 유형별 요인과 성취목표성향의 차이검증

3.3.1 리더십 유형별 요인과 자아목표성향의 차이검증

리더십(변혁적/거래적) 요인과 자아목표성향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요인에서 개별적배려($p=.009^{**}$)는 부적으로, 지적자극($p=.002^{**}$)은 정적으로 자아목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7.03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R^2=.069$ 로 6.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거래적 리더십요인에서는 조건적 보상($p=.018^*$)이 자아목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21$ 에서 2.25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R^2=.027$ 로 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7]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자아목표성향과의 관계

[Table 7]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on self goal orientation

	자아목표성향				
	변수	SE	β	t	p
변 혁 적	상수	.199		15.374	.000
	카리스마	.110	.186	1.524	.129
	개별배려	.103	-.306	-2.612	.009**
	지적자극	.086	.304	3.093	.002**
R=.262, $R^2=.069$, 수정된 $R^2=.059$					
F=7.031, $p=.000$, Durbin-Watson=2.292					
거 래 적	상수	.245		12.526	.000
	조건보상	.066	.150	2.381	.018*
	예외관리	.063	.028	.436	.663
R=.163, $R^2=.027$, 수정된 $R^2=.020$					
F=3.924, $p=.021$, Durbin-Watson=2.254					

$p<.05^*$, $p<.01^{**}$, $p<.001^{***}$

3.3.2 리더십 유형별 요인과 과제목표성향의 차이검증

리더십(변혁적/거래적) 요인과 과제목표성향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요인에서는 카리스마($p=.000^{***}$)가 자아목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19.82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R^2=.172$ 로 17.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거래적 리더십요인에서는 조건적 보상($p=.000^{***}$)이 자아목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20.13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R^2=.123$ 으로 12.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8] 지도자 리더십 유형(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과제목표성향과의 관계

[Table 8]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on task goal orientation

	과제목표성향				
	변수	SE	β	t	p
변 혁 적	상수	.184		13.809	.000
	카리스마	.101	.429	3.734	.000***
	개별배려	.095	-.159	-1.442	.151
	지적자극	.079	.139	1.500	.135
R=.415, $R^2=.172$, 수정된 $R^2=.163$					
F=19.827, $p=.000$, Durbin-Watson=1.836					
거 래 적	상수	.227		12.060	.000
	조건보상	.061	.367	6.127	.000***
	예외관리	.058	-.051	-.854	.394
R=.351, $R^2=.123$, 수정된 $R^2=.117$					
F=20.134, $p=.000$, Durbin-Watson=1.849					

$p<.05^*$,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리더십 요인과 성취목표성향과의 관계를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들을 제시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리더십 요인과 성취목표성향과의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요인인 개별적 배려와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조건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 요인에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개별적 배려를 다르게 지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계고등학교 여학생보다 체육고등학교 여학생이 주위 환경과 운동생활요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승귀, 조미혜[29]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카리스마 리더십을 적용해서는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나 지도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남자 지도자의 경우 여학생들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학년별 차이에서는 리더십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체육고등학교는 기숙사 위주로 생활을 하여 선수배간의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지도자는 학년에 따른 지도내용에 차이를 두지만 지도자 특성에 대한 인식은 같은 종목 간에 일반화되어 학년에 따른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목별 차이에서는 대인종목이 리더십요인의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요인과 예외적 관리 요인에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종목의 특성상 기술적인 부분과 자기관리에 있어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 유도나 태권도, 레슬링 등은 체급별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선수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성격적 특성이 곧 경기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도자와 선수 간에 밀접한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대인종목과 단체종목의 경우, 단체종목은 대인종목과 대조적으로 팀전체의 팀워크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훈련과정은 물론 목표달성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구성원들 간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서라도 대인종목처럼의 선수 개개인간 밀접한 관계와 다른 개념의 접근방식으로 리더십 적용이 필요하다.

운동경력 부분에서는 카리스마 요인에서 2년 이하와 3~5년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수가 지도자의 여러 지도요인에 대한 인식을 최소한 약 2년 이상 지나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카리스마 요인은 지도자가 일반인과 다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제시한 비전에 대해 동일시하게 하

며,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고 강한 충성심을 갖게 하여 리더의 강한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주전·후보별 차이에서는 주전 선수가 예외적 관리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전선수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 및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지도자는 이를 인식하고 주전선수에 대한 꾸준한 관리는 물론, 후보선수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통해 주전선수와 마찬가지로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하며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요인과 조건적 보상요인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후보선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시키는 것이 중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성취목표성향과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에서는 남학생이 과제목표성향에 대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과제지향적인 성향이 높다고 한 유진, 허정훈[38]의 결과와 일치한다. 과제목표성향은 경기력에 대한 비교 기준이 타인이 아니라 과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동기화된다. 이는 지도자가 선수의 훈련이나 전략적 과제 목표를 선정할 때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데, Duda & Chi[12]의 연구에서처럼 승리에 성공 기준을 두면 자아 관여적 목표성향의 분위기가 되고 기술 향상이나 경기 질의 향상을 성공 기준으로 두면 과제 관여적 목표성향의 분위기가 조성되므로 지도자는 종목별 지도요령에 맞게 선수 개개인이 숙련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내적으로 동기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년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과제성향이 높다고 나타난 한태준[16]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그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정한 집단 내에서의 나타난 결과로서 이에 따른 변수들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종목별·경력별 차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경력이 많을수록 과제지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의 경우, 선수들의 경력이 본 연구보다 많이 짧은 것이 이유라고 여겨진다. 일반계 중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과제지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7]와도 이번 연구의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특성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주전·후보 선수간의 성취목표성향에서는 주전 선수가 자아목표성향과 과제목표성향 모두에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수선수가 비우수 선수보다 과제지향성 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7,18]와 유사하다. 종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전선수는 같은 포지션, 같은 체급 등의 팀 동료와 주전경쟁을 통해 경기에 나가게 되고, 주전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훈련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주전경쟁에 대한 자아목표성향 인식과 그에 따른 훈련을 위해 과제목표성향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주전선수가 높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리더십 요인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 유형과 자아목표성향과의 관계에서 자아목표성향의 선수는 개별적 배려 요인을 낮게 지각했고, 지적자극 요인은 높게 지각했다. 이는 리더가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성향을 고려하여 책임감을 고취시켜 지도하는 행동 등의 개별적 배려 요인을 높이면 선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훈련이나 운동기술과 관련된 선수 개인에 대한 지적자극 요인에 대해선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아성향을 가진 선수에게는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선수의 훈련프로그램 계획이나 기술 지도를 하는 것 등의 지적자극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목표성향의 선수는 거래적 리더십요인에서 조건적 보상 요인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자아목표성향의 선수는 개인적인 성취동기를 위해 리더의 조건적 보상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변혁적 리더십 유형과 과제목표성향과의 관계에서 과제목표성향의 선수는 카리스마요인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의 강한 정서와 탁월함은 과제목표성향의 선수에게 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동기와 성공을 위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해 준다.

과제목표성향의 선수는 거래적 리더십요인에서 조건적 보상 요인을 높게 지각하였다. 자아목표성향의 선수들과 달리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은 운동기술을 하나의 숙련의 과정으로 이해함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훈련이나 경기를 잘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선수에게 칭찬과 인정 등의 심리적인 것에서부터 인센티브 제공, 높은 평가점수, 성과 혜택 등의 물리적인 것 등을 통해 내적동기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는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성향이 구분된다 [8]. 이규식[2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취목

표성향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육동원과 신정택[39]은 성취목표성향이 운동심리변인인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공수, 최영준, 정기홍, 문익수[20]도 성취목표성향은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수들은 개개인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과 수행력에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리더들의 리더십에 의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경쟁적인 스포츠상황에서 지도자와 선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점점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지도자의 리더십 요인간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시기부터 육체적인 훈련 못지않게 정신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선수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체육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프로팀 및 실업팀 선수, 대학선수, 일반 중고교 선수 등 다양한 종목과 수준에서 단편적인 연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로 활용되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기술수준의 향상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도자의 리더십,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의 변화를 측정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론적 토대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Reference

- [1] Ahn, Ju-mi, The relationship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exercise drop out of aerobic gymnastic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18, No. 1, pp.75-90, 2007.
- [2] Bass, B. M.,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Y: The Free Press, 1985.
- [3] Bicio, P., Hackett, R. D. & Allen, J. S., Further assessment of Bass's(1985) conceptualization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4), 468-478, 1995.
- [4] Burns, J. M., Leadership. NY: Harper & Row, 1978.
- [5] Case, B.(1987). Leadership behavior in sport: A field test of the situational leadership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8. 256-268.
- [6] Chelladurai, P., & Carron, A. V.(1978). A reanalysis of formal structure in sport.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s. 2. 9-14.
- [7] Chung, Bong-Hea, The relationship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o sports personship in youth sport

- participants, Korea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16, No. 3, pp.173-186, 2005.
- [8] Chung, Chung-Hee, Kim, Byoung-Jun, Understanding of Sports Psychology, pp.325, KumGwang, Seoul, 2006.
- [9] Cheon, Hong-u, The Influence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2009.
- [10] Crandall, R., Social interaction, affect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0, 1978.
- [11] Duda. J. L.,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and ego orientation the perceived purpose of sport among high school athletic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 318-335, 1989.
- [12] Duda. J. L., & Chi, L., The effect of task-ego involving conditions on perceived competence and causal attributions in basketball. Paper Presented to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Applied Sport Psychology,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1989.
- [13] Duda, J. L., & Nicholls, J. G., Dimensions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school work and s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90-299, 1992.
- [14] George, T., Victory to Redskins, But credit to petition. The New York Times, p. b18, 1993.
- [15] Gibb, C. A., Leadership, Harmondsworth : Penguin, 1969.
- [16] Han, Tea-Joon, The Relationship among Amateur Wrestler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management and Sport Self-confidenc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19, No. 4, pp.35-52, 2008.
- [17] Huh, Jung-Ho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Goal Orientation And Athletic Self Management, Korea Journal of Sport Science, Vol. 15, No. 3, pp.127-135, 2004.
- [18] Jung, Guk-hyeon, The Study on Taekwondo players' Sport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Physical Self-Efficacy, Korea sport research, Vol. 14, No.1, pp.271-281, 2003.
- [19] Kim Byeong-mun, Application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Case of Hiddink Leadership, Journal of Sport and Law, Vol.13, No. 1, pp.11-37, 2010.
- [20] Kim, Gong-Soo. Choi, Young-Jun. Joung, Ki-Hong, Moon, Ik-Soo, Goal Orientation and Flow Experience on Badminton Participants' Level,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31, pp.585-594, 2007.
- [21] Kim, Young-Soo-Yoon, Jae-Hong,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Leadership and Corporate Culture Types, ISO 9001:2000 System, the Quality Culture Formation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Qualify Management, Vol.32, No. 2, pp.37-58, 2004.
- [22] Kwon, Sang-sul, The Effect of Organization Members Attitudes or Perception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1995.
- [23] Lee, Kyu-Sik, The effect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in physical education on attribution styles and score, Vol. 41, No. 1, pp.197-205, 2002.
- [24] Lee, Gi-cheol, The Effects of Athlet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Type , and Team Effectiveness on Sports Performance,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12, No. 1, pp.585-594, 1999.
- [25] Lee, Myeong-guk,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patterns and team's sports performance by a secondary school's soccer play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2000.
- [26] Lee, Bong-Keun, The Effect of the Leadership Type of Judo Coaches on Team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2001.
- [27] Lee, Bong-Chun, The Influence of Taekwondo Instructor's Leadership Type on the Satisfaction of the Traine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hysical Science Yoon-in University, 2002.
- [28] Lee, Yeong-hwan, Lee Jae-bong, Chung, Guk-hyeon, A Study on the Sport Leader Leadership Style, 2000 Proceeding of Fall Conference, Korea philosophy society for sport & dance, 2000.
- [29] Moon, Seung-Kwi-Cho, Mi-Hye, An Analysis on Students' Stress-factors between Physical-education High School and Academic High School,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Vol.19, No.4, pp.45-57, 2005.
- [30] Nicholls, J. K.,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31] Park, Ho-geun, An Analysis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eacher's Leadership Training Progra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22, No.3, pp.47-73, 2005.
- [32] Pintrich, R. R.,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self-regulated learning.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451-502). New York: Academic Press, 2000.
- [33] Ryu, Jeong-mu-Lee, Gang-heon, Sports Psychology,

pp.460, MinEumsa, 1990.

- [34] Si Seong Ko & Chang-Won Lee,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Styles for Each Rank in Korea's National Defense Organization, Korean Journal of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Vol 15, No. 2, pp.111-139. 2011.
- [35] Sin, Ji-Sook·Kim, Byoung-Jun·Yoo, Jin, Athletes' Perception of Sports Leadership: Consideration and Yearning,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12, No. 2, pp.107-119, 2001.
- [36] Seo, Hui-jin,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Sport Continuance and Withdrawal among Adolescent Athlet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18, No. 3, pp.481-495, 2005
- [37] Sung, Chang-hun,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goal-setting styles on motivational behaviors and performance, Seou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s degree dissertation., 1995.
- [38] Yoo Jin-Heo, Jeong-hun,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Motivational Climate on Intrinsic, Vol. 12, No. 1, pp.109-123, 2001.
- [39] Yook, Dong-won·Shin, Jung-Taek, The Analysis on Relation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Physical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2, No. 5, pp.171-180, 2003.

고 의 석(Wi-sug, Ko)

[정회원]



- 연세대학교 체육교육 (체육학사)
- Indiana Univ., Sport Psychology (체육학석사)
- Florida Univ., Sport Psychology (철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스포츠심리상담, 운동학습, 스포츠심리기술훈련

박 영 찬(Young-Chan, Park)

[정회원]



- 2010년 2월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체육학사)
- 2012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체육학석사)

<관심분야>

스포츠심리기술훈련